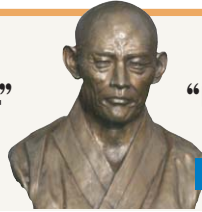


“똥막대기를 마음껏 물어뜯어라”

8 2008 하안거 해제법어



“만해정신 세계로 세계로...”

5 2008 만해축전 풍성한 통섭 마당



“종회 사부대중 양원제로...”

2 고존환 교수 불교개혁 ‘쓴소리’



“5계 제대로 지키면 부처”

7 선지식·통도사 율원장 해남 스님

“이 봉우리 이름 직지입니다”

히말라야에 ‘직지봉’ 명명
파키스탄 승인... 직지원정대 쾌거

히말라야에 ‘직지봉’이 생겼다.

총북 산악구조대원들로 구성된 ‘직지원정대(대장 박연수)’가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른 파키스탄령 히말라야 산맥의 한 미담봉(해발 6230m)이 파키스탄 및 세계 각국의 지도에 ‘직지봉’으로 표기된다.

원정대에 따르면 파키스탄 지명위원회는 7월 28일 이 원정대가 7월 16일 세계 최초로 등정하고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직지봉’으로 이름 붙인 이 미담봉을 ‘직지봉’으로 명명하는 것을 공식 인정키로 했다.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 가운데 한글로 이름이 명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박연수 대장은 설명했다. 박 대장은 “원정대가 오른 길은 ‘직지루트’라는 이름으로 세계 산악계에 보고된다”며 “직지에 담긴 우리 조상의 창조 정신이 히말라야 설산에 새겨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효선 기자



직지원정대 배명석, 민준영 대원(왼쪽부터) 사진제공=직지원정대

“27일 시청앞 광장에 불자들 모여라”

‘헌법파괴 ...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 일시·장소 변경

8월 23일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앞 광장으로 변경됐다. 범불교도대회는 27개 종단 결집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불행위원회가 주관해 종단과 사찰, 그리고 단체가 참여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예정이다.

불행위원회는 8월 11일 각 종단과 총림, 사찰, 신도단체, 불교NGO 대표 등 200여명이 모인 긴급범불교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 참여를 위해 베이징올림픽 기간은 피하자”는 안전을 받아들여 8월 27일 개최를 결

의했다. 이에 앞서 불교종단협의회도 13일 이사회를 열어 모든 종단과 사찰이 범불교도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불행위는 “18일 교구본사주지회의와 19일 직할교구주지회의, 20일 중앙총회, 22일 범불교도지도자회의 등을 열어 민방의 준비를 하고 조계사, 봉은사에 이어 도선사·전등사 등 주요사찰에서 23일까지 규탄 범회를 열어 열기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불행위는 ▲이명박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의 조계종 본말사 회유행위 중단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시 영남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범불교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웃종교에서도 정부의 ‘종교차별 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천도교청년회, 원불교청년회, 평화통일는가톨릭청년회, 한국청년연합회(KYO), 한국민족종교청년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청년위원회 등 10개 청년·종교단체 회원들은 8월 12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종교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3면>

노덕현 기자

진흥원 새 이사장에 민병천 박사추대

이용부씨 이사에 ... 불교방송이사로도 추천

대한불교진흥원은 8월 14일 신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故 흥승회 이사장 타계로 공석이던 이사장에 민병천(76·사진 왼쪽)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새 이사로는 이용부(64·사진 오른쪽) 前 문화부 중무관을 선임하고 불교방송 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민병천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서경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진흥원 이사를 지내며 흥승회 이사장 타계 후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적극 실천해 나가는 진흥원이 되자는 이



사회에의 주문을 받아 만장일치로 선출된 민병천 이사장은 “시대 흐름에 맞는 진흥원 운영 방법을 연구해 올해 가을 안에 가시화 하겠다”며, 불교방송의 조속한 사장 선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병천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이용부 이사 임기는故 흥승회 이사의 잔여임기인 2010년 2월 28일까지다.

조동섭 기자

社告

메주와 첼리스트 禪詩를 말하다

-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출간기념 돈연 법사 강연회



<황금털사자의 미미소>1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에서 고암 스님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선사들이 남긴 깨달음의 원음을 선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선시 해설서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불교계는 물론 문단에 서도 선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출간을 기념해 돈연 법사사진을 초청해 선시 특강을 갖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선시강연회

◆강연

주제: 21세기 한국문학에서 선시의 자리
강사: 돈연 법사(시인, 메주와 첼리스트 대표)

◆인사말씀

송준영 시인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저자)

◆특별연주

첼로: 도원녀(메주와 첼리스트 대표)

참가방법

◆동참금:1만원

◆계좌 입금 후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에이치비엠씨)038-25-0008-365.
(농협,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063-01-269050.

-입금 후 전화 하실 곳

현대불교신문사 (대표)02-2004-8200 (담당자) 2004-8233.

◆일시: 2008년 8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

◆주관: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취재기자 모집

현대불교신문사가 취재기자(신입)를 모집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불교계에서 일할 인재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모집부문: 취재기자 ◆모집인원: 신입 0명

◆지원자격: 대졸자 이상 ◆접수기간: 2008년 8월 20일(수)까지

◆문의: 이메일로만 접수 (전화문의 사절) cgseo@buddhapia.com

◆제출서류 -이력서(자유양식), 반명함판 사진 부착, 상단에 연락처(명시)-자기소개서

-메일 제목에 [취재기자지원 이름_연락처] 순으로 명기.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

“범불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범불사무소 서안
강령회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김기현 변호사 | 031)436-3114 017-535-0685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순 황산화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원형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육 전용 관불수향
울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1만관 대종 주조 성공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들림이야 원인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 없어
고객을 위한 인력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민주의 종 8150관(현존 국내 최대)

국내 최대종인 화천 세계평화의 종(37.5ton)이 성종사 기술진에 의해 성공리에 주조되었습니다.
오는 11월 화천 평화의 종 공원에 설치되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활용될
세계평화의 종은 성종사의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주조된 국내 최대의 종으로
한국 범종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될 것입니다.

人間文化財 第112號 梵山 元光植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 www.sungjonga.co.kr / E-MAIL: sungjonga@hotmail.com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